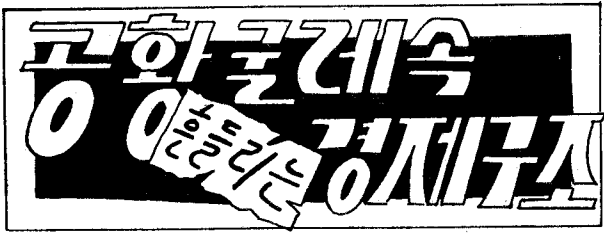


국가개입 거부하는 자본법칙



기획시리즈(2) - 공황진입과 관련한 한국경제에 대한 논의(上)

리직 도덕적 비난과 대중선동도, 그것이 사회정치적 배설행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의 과학적 중국적 해결을 위한 진지한 모색은 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그러한 모색을 정서적 배설행위로 대체해 버리는 것이다.

II. 본질 방해하는 실증적 방법

물론, 경제위기 논쟁에서 위기=공황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재테크'나, '투기심리'나, '자본의 윤리'나, 혹은 '임의적인' 산업 구조조정'이나 하는 문제로 대체한 논자들의 주장의 의도가, 문제

의 활발한 전개에 힘입은 비판적 정치경제학의 재발견으로 세계가 도전받게 되었다. 그리고 진보적 입장에서 경제현상을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앞다투어 비판적 정치경제학의 방법을 수용하고자 하였다. 경제위기의 문제를 둘러싸고 필자와 논쟁한 사람들도 대부분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실제로 이른바 근대경제학의 방법을 비판하면서 비판적 정치경제학의 방법을 이해하고 수용하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경우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소위 근대경제학의 최대 문제의 하

내세우는 것이 '통계', 특히 이른바 GNP 등의 통계이다. 실증주의적 방법을 과학적인 것으로 내세우는 한 당연히 그 길 이외에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그들은 "부르조아 통계를 재가공"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르조아 통계에 무비판적으로 기초"하고 거기에 잘못된 개념을 결합시켜 문제를 재단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의 경기논쟁과 관련하여 예를 든다면, 최근 일부의 논자들이 의해서 주장되는 '89년 소공황' '실사'나 '89년 중간공황' 등이 그것이다. 이들 논자는, 89년 당시에는 당시의 각종 '통계' (실지)는 기업의 경기전망이나 투자전망

의문이 제시될 것이다. 필자가 아는 한, 공황 국면은---그것이 이른바 '소공황'이든 혹은 '중공황'이든---생산이 축소되는 국면이지, 통화량 폭락으로 인한 화폐가치는 국면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성장의 둔화'를 근거로 '소 혹은 중간' 공황'론을 편 것은, '통계'의 사실 반영 여부를 떠나서도,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실증주의자들의 보고(實報)인 '통계'의 문제에 이르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근대 200여년 동안 한국의 GNP 성장률이 통계상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80년도인 가 한 번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논쟁상대가 됐던 사람들도 대강 79-82년도를 공황기로 규정하는 데에 최근에는 별반 인색해 하지 않는다. 필자가 그렇게 파악한다. 다만, 필자의 경우, GNP 통계가 무어라고 말하건, 따라서 실증주의자들이 제시하는 통계적 근거가 논거되는 달리, 그 기간 동안 불규칙한 변동들을 겪으면서도 생산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고, 바로 그러한 한에서 공황 국면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 글
쓰는
순서
1. 경제공황의 이론적 고찰
 2. 3. 4. 공황진입과 관련한 한국경제에 대한 논의(上·中·下)
 5. 좌담

IV. '국독자 탈공황'의 신화

'경제위기' 운운하면서도 이를 정면에서 공황으로 규정하기를 거부 혹은 주저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사실은 '국독자 탈공황(國독者脫公慌)'이라는 신화가 자리잡고 있다. 경제위기를 논쟁을 주축한 독자들은 알겠지만, 필자를 비판해온 논자들은, 일국적으로는 국가의 경제개입에 의해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국독자 국가들 간의 정책협조에 의해서, 특히 제2차 대전 이후의 현대자본주의에서는 공황을 저지하거나, 회피하거나, 혹은 적어도 완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 본질은 베르슈타인의 공황론(혹은, 공황론 비판)과 카우츠키의 초체국주의론의 어설픈 복합으로, 아주 낡은 주장의 재탕이다. 베르슈타인의 공황론(비판)은 무엇보다도 29년의 대공황으로, 카우츠키의 초체국주의론은 두 차례의 제국주의의 간 세계대전으로 파탄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어떤 논자는 필자를 비판하여, 필자가 "국독자 자본주의에서의 공황의 형태변화를 일체 부인하고 공황의 형태를 고전적인 주기적 공황이 보이는 양상으로 고착시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국독자 자본주의에서 경제위기의 양상은 자유 경쟁단계의 자본주의의 경우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자본주의의 주기에 공황이 보이지 않게 되는 공황의 필연성 규정을 오늘날의 경제위기의 분석에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경제체제의 구체적 분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필자를 가리켜서 "근본주의의 자"나 "본질주의의 자"나 하고 속삭여 더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심심치 않게 풍문에 들려온다.

다. 필자의 방법을 본질주의의 근 본주의나 하고 규정할 때, 굳이 이에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질을 밝히고 그에 의거하여 운동법칙을 밝히는 것이 분석의 당연한 요구이고, 본질과 운동법칙을 밝힌 과거의 성과를 원용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이른바 비판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우선, 그들은 무엇이 변화된 형태이고 무엇이 변화되지 않은, 혹은 변화될 수 없는 본질인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필자가 형태 변화를 일체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필자는 현재의 공황을 말하면서, '왜 그리고 어떻게 국독자 국가가 개입하여, 예를 들어, 과거 공황기의 노동력을 포함한 상품가격의 저

대신에 그 명목적 등위를 일으키는가?', 그리고 "그러한 명목가격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왜 그 본질=실질가격은 저락한 것인가?" 등의 문제를 현재의 관리통화제=인플레이션과의 관계에서 누누히 밝혀 왔다. 그리고 그러한 국독자 국가의 개입이 계급 및 계층 간의 이해에 어떻게 작용하면서 공황의 발현 및 진행 양태를 어떻게 변용시키는지도 누누히 밝혀 왔다. 심지어는, 논쟁의 시비에 걸렸던 것이지만, 과거에는 공황이 영국 등 자본주의적 생산의 중심부에서 시작되었는데, 최근에는 왜 자본주의의 선진국 시장의 수출을 축으로 하여 생산을 증대시켜온 한국 등 이른바 신흥공업국가에서 먼저 시작되는가를 상품구성 및 시장의 지리적 구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밝힌 바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저들의 눈에는 '형태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 그것은, 그들이 '형태 변화' 운운할 때, 사실은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의 변화'(!) = '탈공황'의 환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은 "자본주의의 일반의 차원에서 이야기 되는 공황의 필연성 규정을 오늘날의 경제위기의 분석에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경제체제의 구체적 분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공황의 주기적 필연성이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간단히 덧붙이는 것이지만, 저들이, '공황의 형태를 고전적인 주기적 공황이 보이는 양상으로 고착' 운운한다든가, "자본주의의 일반의 차원에서 이야기 되는 공황의 필연성 규정"의 도입 타당성 여부를 운운할 때, 그들은 "고전적인 주기적 공황이 보이는 양상"을 스스로 고착시켜 이해하는 형이상학을 드러내는 것이고, 일반(보통)과 특수(특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국독자는 '자본주의의 일반'과는 무연한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현실은 그들의 '탈공황' 허위의 식과는 반대로 격렬한 공황이 거듭 반복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국독자적 단계에서도 '사회이론'을 위한 무정부적 생산'이라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본적 사회적 성격은 지양되지 않고, 오히려 과잉생산의 기술적 조건인 생산량의 거대화,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생산력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의 생산의 이러한 진행은 한편에서는 보다 긴 기간의 공황 및 침체기와 보다 짧고 불안정한 확장 및 번영기로 나타나고 있고, 이 점이, 공황이란 개념은 거부하지만 경기를 낙관적으로만 파악하지는 않는 많은 사람들의 의식에는 이른바 '장기불황' 혹은 '대불황'의 문제로 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채만수

(민족민주운동 연구소·연구원)

증권·부동산·투기 격화 등 호황 극치, 89년 공황 돌입 사적 이윤 위한 무정부적 생산지속으로 탈공황 불가능해

의 중국적 해결의 단서를 찾는 대신 이를 정서적 배설행위로 대체하고자 했던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그렇게 주관적으로 파악하는 한, 그들이 활동하는 객관적 역할은 그들의 주관적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절대적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방법적 연유가 있다.

한국에서 80년대 중반 이후는 비판적 정치경제학의 재발견기이다. 50년대 이후의 정치 상황 및 그에 힘입은 특히 60년대 이후의 강단의 풍토 때문에 80년대 중반에 이르러까지 이른바 '근대경제학' 혹은 '주류경제학'이라고 하는 미국풍의 경제학이 우리 사회의 경제학적 사고를 지배해온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학의 이러한 전통은 80년대 중반에 들어와 민중운

나 그 실증주의적 및 기호주의적 방법이다. 즉, 그 방법론상의 주관적 관념론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비판적 정치경제학의 방법을 수용하고 그에 기초해서 경제현상을 분석한다 그 자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암묵적으로 실증주의적 방법을 답습하고 있거나, 오히려 실증주의적 방법을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간주하여 그에 기초하여 정치경제학을 재구성 혹은 재해석하려는 노력마저 아끼지 않고 있다. 몇몇 학위논문들에서 시도된, 이윤을 변동의 '통계적 실증'을 통한 공황이론의 '증명' 등은 그 대표적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증'이라는 말에 매료되어 실증주의의 본질적이며 철학상의 주관적 관념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여 그들이 급과속조치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까지도)를 제시하면서, '공황'임을 극구 부인하고 성장 국면임을 주장했거나, 아니면 침묵으로 그에 동의하였다. 그러다가 90년 말 이후 자기의 이전 주장에 대한 어떤 해명도 없이 '89년 소공황'설을 주장하였고, 그 논거로 제시된 것이 89년 이래의 월별 'GNP 성장률'이라는 통계였다. 그들의 주장인 즉, '통계에 의하면 89년 한 동안 GNP 성장률이 둔화되었다가 다시 고성장세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 동안 '소공황' 혹은 '중공황'을 겪었을 뿐 본질적인 공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 혹은 분석에는 우선, 실증 그 통계가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제해라, "과연 성장률=생산확대율의 둔화 국면을 '소 또는 중간' 공황'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하는

다. 이 점은 현대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른바 국민경제성장률의 통계가 어떤 '시장에서 바라보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방이 통계 기술은 발전하였 것이 분석의 당연한 요구이고, 본질과 운동법칙을 밝힌 과거의 성과를 원용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이른바 비판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우선, 그들은 무엇이 변화된 형태이고 무엇이 변화되지 않은, 혹은 변화될 수 없는 본질인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필자가 형태 변화를 일체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필자는 현재의 공황을 말하면서, '왜 그리고 어떻게 국독자 국가가 개입하여, 예를 들어, 과거 공황기의 노동력을 포함한 상품가격의 저

다. 필자의 방법을 본질주의의 근 본주의나 하고 규정할 때, 굳이 이에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질을 밝히고 그에 의거하여 운동법칙을 밝히는 것이 분석의 당연한 요구이고, 본질과 운동법칙을 밝힌 과거의 성과를 원용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이른바 비판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우선, 그들은 무엇이 변화된 형태이고 무엇이 변화되지 않은, 혹은 변화될 수 없는 본질인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필자가 형태 변화를 일체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필자는 현재의 공황을 말하면서, '왜 그리고 어떻게 국독자 국가가 개입하여, 예를 들어, 과거 공황기의 노동력을 포함한 상품가격의 저

“암(癌)정복을 꿈꾸는 신약개발연구원”

암정복의 일보를 내딛으며...

여보세요. 생명과학 연구개발실이지요?
이번에 개발된 제3세대 항암제는 언제쯤 시판이 가능하니까?
미국에서 개발된 기존의 항암제보다 우수한 제3세대 항암제를 우리 힘으로 개발, 암정복의 전환점을 이루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우리 연구실에서 진화하기 가장 빠를것만큼 세계적 연구성과에 대한 관심은 컸다.
세계 35개국에 특허출원, 빠른 시간내에 세계시장에 내놓게될 항암제 개발의 뒤에는 팀원 모두의 희생적인 노력이 있었단다.
연구결과가 진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신약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던 선배들의 독려와 함께 신입사원 시절의 해외전지훈련의 기억은 뜻내기 연구원인 나에게는 힘이 되었다.

이제 나의 목표는 AIDS정복

2년 전, 햇방아리 신입사원으로 참가했던 일본에서의 신입사원 해외전지훈련.



●89신입사원 해외전지훈련 대인 공동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일본의약제들 돌아보며 이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세계적 신약을 만들고야 말겠다던 뜻내기 의약개발연구원의 다짐들... 일본 구석구석을 몸으로 부딪치며 체득한 패기의 참모... 이 모든 체험들은 세계적인 큰일을 해내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며

변화하는세계의 모습을 일깨울수 있었던 소중한 체험이 되었다. 이제 항암제의 상품화에 이어 20세기의 흑사병 AIDS를 정복하는 일이나에 주어진다. 사명감이 보람이다. AIDS정복의 소식을 전하며 "암이나 AIDS가 불치병이란 말도 이제 옛말입니다"라고 말할수 있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나의 하루는 힘찬 전진을 계속할 것이다.

전경 인드스트리
생명과학연구소 항암제팀
김강혁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세계를 직접 배우게 하는 일... 선점이 하고 있습니다. 선점은 국내 최초로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세계 곳곳에서 신약개발을 대상으로 해외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진국 미래의 주역인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세계를 배울수 있는 더욱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실험동물에 한정된 제3세대 항암제팀 가지고 독성 및 약효실험을 하는 모습.

SUNKYONG
鮮京그룹

(주)신경·신경인드스트리·(주)SKC·웨라트위컬·신경건설·(주)유공·유공해운·(주)유공가스·유공아코와·(주)유공상사